

# 이은하 “아버지 빛 · 사채까지 70억 다 갚았다”

“초등학교 6학년 6월쯤 앨범 나와... 언니 등본내고 호적 고쳐”

“쿠싱증후군 지금은 다 나아... 약 부작용에 이제 문제는 살”

‘아직도 그대는 사랑’ ‘밤차’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등 히트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 이은하가 나이를 속이고 활동했던 이유부터 아버지의 70억 빚을 다 갚고 쿠싱증후군을 극복하기까지 인생사를 고백했다.

이은하는 18일 오전 방송된 KBS 1TV ‘아침마당’에서 “초등학교 6학년 6월쯤에 앨범이 나왔다. 당시 만17세 미만은 가수를 할 수 없는 시대였다”고 운을 폈다. 이어 “1973년도에 데뷔를 해서 기념 음반을 만들었고 그때 방송국에서 신인가수 후보에 올랐는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해서 57년생인 언니의 등본을 냈다. 그래서 호적을 고치게 됐다. 용서를 빌다”고 털어놨다.

또 이은하는 나이를 들어보이게 하려고 화장도 했다고 고백했

다. 그는 “지금 아이들은 청순한 매력 있는데 저는 일부러 나이를 속여 보이게 했다”며 “발육도 안 돼서 털실이나 천 조각을 (가슴에) 붙였다. 지금은 보조물도 많지만 그땐 아니어서 여름 되면 덥고 땀나서 죽는다. 무대를 끝내고 나오면 내 것이 아니니까 (보형물)이 돌아와 있어도 모른다. 영구리로 나가 있더라. 빠르게 (보형물)을 고치고 그랬다”고 회상했다.

이은하는 아버지가 자신의 노래를 가르쳤다고 털어놨다. 그는 “아버지가 많이 밀어줬나”라는 질문에 “아버지가 아코디언 연주를 하시고 무대에 서셨었다. 제가 학교 갔다가 오면 저를 연습 시켰다. 아버지는 이미지 선생님 연주를 많이 하셨다. 노래 가르키시면 이미지 선생님 노래를 가르쳤

어름에 애들 다 뛰노는데 저만 맨날 연습시켰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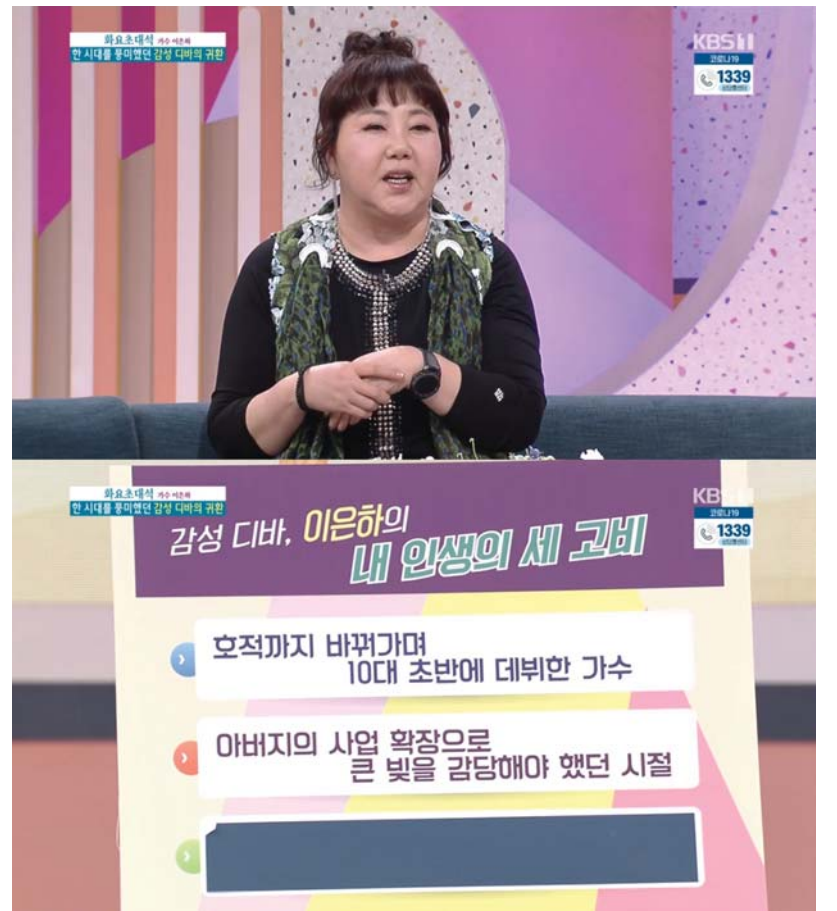
또 이은하는 아버지의 빚을 갚게 된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아버지께서 제가 나이가 차고 저를 언제가 떠나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당시 나름대로 사업해보고 싶어 했다. 집이 궁전까지 아니더라도 동생과 온 식구가 다 살 수 있는 건물 짓고 싶었다”며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계약서나 이런 걸 모르고 담보도 본인이 책임지다 보니까 (빚을 지게 됐다)”고 회상했다.

이은하는 “지금 같은 경우엔 법적 절차에 따라서 못 갚겠다 할 수도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내가 빚인 거니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시다가 ‘네가 책임지라’고 하셨다. 빚을 다 제압으로 돌리셨다. 그게 1990년도, 1989~91년도

정도 되는 것 같다”며 “그때 빚이 6~7억 정도였다. 다 갚았다”고 돌아왔다.

특히 이은하는 이자가 자신을 가장 힘들게 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제일 힘들었던 게 이자였다”며 “그때 사채가 많았다. 여름 돌아오고 하면서 제3금융권까지 갔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러면서 “이자를 안 주면 ‘방송국에 폭로한다’는 등 협박이 더 힘들더라”며 “이자만 10배 정도 돼 총 70억을 갚았다”고 말해 놀라움을 더했다.

이은하는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과거 쿠싱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고백했던 그는 “지금은 다 나아다고 볼 수 있다”며 “디스크 협착이 됐는데 수술을 안 하고 버티고 50세가 넘다 보니 갱년기도 왔었다.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약 부작용이 나왔던 것 같다. 이제 문제는 살”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전에는 3일도 굶어봤는데 100g도 안 내려갔다”며 “거의 1년 반 정도를 약을 안 쓰고 계속 견고 했다. 견는



것 위주로 운동했는데 장시간 걷기 된다. 예전엔 그게 안 됐다”고 고 했더니 안 먹는데도 다이어트 되더라.

## 방탄소년단 정규 4집 선주문 402만장 돌파...새 역사



역대 최다 선주문량

오는 21일 발매 예정

그들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MAP OF THE SOUL : 7’ 선주문량이 402만 장을 넘어선 새 역사를 썼다.

18일 방탄소년단 앨범 유통사인

드림어스컴퍼니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정규 4집 ‘MAP OF THE SOUL : 7’은 지난 17일 기준 선주문 402만 장을 돌파했다. 이는 국내의 선주문량을 드림어스컴퍼니에서 집계한 수량이며, 방탄소년단의 앨범 역대 최다 선주문량이다.

오는 21일에 발매되는 새 앨범 ‘MAP OF THE SOUL : 7’은 예약 판매를 시작한 지난 1월9일부터 일주일

만에 342만 장을 돌파하며 역대급 컴백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지난 17일에는 타이틀곡 ‘온’을 포함해 총 20곡으로 구성된 새 앨범의 트랙리스트를 공개하며 전 세계 팬들의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오는 21일 오후 6시 네 번째 정규 앨범 ‘MAP OF THE SOUL : 7’을 전 세계 동시 공개한다.

## 홍상수 감독 ‘도망친 여자’

### 25일 베를린영화제 첫 상영

홍상수 감독의 24번째 장편 영화 ‘도망친 여자’가 제70회 베를린국제영화제 공식 상영 일정 및 해외 포스터를 공개했다.

20일부터 3월1일까지 개최되는 제70회 베를린국제영화제 경쟁부문(Competition)에 초청된 ‘도망친 여자’는 결혼 후 한 번도 떨어져 지낸 적이 없었던 남편이 출장을 간 사이, 두 번의 약속된 만남, 한 번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과거 세 명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감희(김민희 분)를 따라가는 내용을 그리는 영화다.

‘도망친 여자’는 현지 시간 기준 오는 25일 오전 9시 영화제 메인 상영관인 베를리날레 팔라스트에서 프레스 상영회로 처음 공개된 뒤, 같은 날 오후 4시 월드 프리미어가 상영된다. 이어서 26일, 27일, 28일까지 공식 상영될 예정이다. ‘도망친 여자’는 베를린국제영화제를 통해 공개된 뒤 율동 국내 극장가에 개봉한다.

이번에 공개된 해외 포스터는 홍상수 감독이 배우 김민희와 7번째 호흡을 맞춘 작품으로, 김민희 외에 서영화, 송선미, 김새벽, 권해효 등이 출연한다.



북촌의 거리가 한적한 정취를 풍기며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그 속을 유유히 걸어가는 감희의 발걸음이 시선을 집중시킨다. 또한 영화 속에서 그녀가 마주할 세 곳의 장소, 세 친구와의 만남에 대한 궁금증을 자극한다.

## 서동주 “김영철과 소개팅? 아빠 서세원 닮아 싫다”

“늘 누구 만나고 있다” 현재도 연애 중 밝혀 눈길



방송인 서정희의 딸이자 변호사인 서동주가 연애와 관련된 고

민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난 17일 오후 방송된 KBS

JOY 예능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에는 서동주가 게스트로 출연해 이수근과 서장훈에게 고민 상담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서동주는 “사실 커리어는 되게 잘 풀리고 있는데 연애가 문제”라며 “예전에는 좀 길게 잘 만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자주치고 빠지게 되는 것 같다”라고 고민을 토로했다.

서동주는 “나이가 들었으니깐 지금은 3년 사귀면 마흔이 넘는 다”라며 “그래서 더 빨리 만나려고 했던게 많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만나고 있고 항상 만나고 있다. 늘 누구를 만나고 있다”라고 현재도 연애 중

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러한 서동주에게 이수근과 서장훈은 이상형을 물었고, 서동주는 “다정다감한 사람을 제가 좋아한다. 아빠가 되게 불 같았다”라며 “그거랑 정반대되는 다정다감한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아버지 서세원에 대해서도 간접 언급했다.

이에 서장훈은 “희한하게 아빠 성격이 너무 싫어서 저런 스타일은 진짜 피해야겠다고 했는데 꼭 걸리면 아빠 같은 사람”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수근과 서장훈은 이후 서동주에게 “김영철이 다정다감하다”라며 방송인 김영철을 연애 상대로 추천했지만, 서동주는 “너무 아빠 닮았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해 폭소케 했다.

뉴스1

## ‘너는 내 운명’ 박시은, 딸 부부 입양에 속마음 고백... 1월 예능 1위 ‘8.6%’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이하 ‘너는 내 운명’) 박시은 어머니가 딸의 입양에 대한 속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해 눈길을 끌었다.

18일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방송된 ‘너는 내 운명’은 전국 기준 1부 7.9%, 2부 8.6%를 기록했다.

이날 2세를 준비 중인 진태현, 박시은 부부는 결혼 후 첫 산전 검사를 받기 위해 산부인과를 찾았다. 혈액검사부터 시작됐고, 진태현은 “바늘 공포증이 있다”라며 채혈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시은은 어린아이를 다독이듯 채혈을 하는 진태현의 손을 꼭

잡아줬다.

이어 두 사람은 각각 정액검사, 자궁 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두 사람 모두 임신 시도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진태현은 모든 수치가 정상인데 이어 정자의 양이 기준치의 7.6배라는 결과를 받았고, 이에 안도한 듯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다.

한편 딸 부부가 2세 준비를 위해 산전 검사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박시은의 어머니가 두 사람의 집에 찾아왔다.

어머니는 “입양하기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서 언젠가는 한 명 데려오겠다고 생각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세연이는 자주



봐서 예뻐다. 내 편이 하나 더 생겼구나’ 싶었다”라고 해 모두를 뭉클하게 했다.

이날 박시은의 어머니가 입양에

대한 속마음을 드러낸 이 장면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분당 시청률 9.9%로 ‘최고의 1분’을 차지했다.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측이 악플러 고소 진행 상황을 밝혔다.

아이유 소속사 EDAM 엔터테인먼트는 17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2019년 10월 18일 공지한 바와 같이 아이유를 향한 악의적인 비방 게시물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 결과, 피의자 대다수의 신원을 확보했으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과정이나 세부적인 진행 상황을 공개하기 어려우나 순차적으로 처벌이 이뤄지고 있으며 결과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꾸준한 모



경 대응을 알렸다.

한편 아이유 측은 지난해 10월 “무분별한 악성 댓글과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성적 희롱, 인신공격 등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에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고 알린 바 있다.

## 아이유 측 “악플러 고소 후

### 조사 진행 중...지속 법적 대응”